

[목회실에서]

## “악어의 눈물”

Crocodile tears

김영훈 목사

얼마 전, 한국의 폴 포츠 (Paul Roberts Potts)로 불렸던 최성봉씨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며 성악가를 꿈꾸었던 그는, 2011 년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난 8 월에,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장암 4 기로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아낌없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Sometime ago, I felt so bitter when I read an article about Choi, Sungbong who was known as a Korean Paul Roberts Potts. As a daily laborer who dreamed of being an opera singer, he drew attention when he won the first runner-up at the 2011 Korea's Got Talent show, and his story moved so many people. Last August he said in his Instagram that he was fighting a stage 4 colon cancer. He also complained of financial difficulties for treatment. Many people were saddened by the news and were said they generously supported him.

그런데, 불과 2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곤 했다는 말도, 눈물이 나와도 잘 견디고 있다는 그의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거짓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악어는 먹이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악어는 턱의 신경이 눈물샘의 신경과 같기때문에 턱으로 먹이를 씹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거짓된 눈물, 위선적인 눈물을 가리켜,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위선적인 정치인들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눈물을 보인 사람들을 가리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Then, less than two months passed, all his words turned out to be false. The words that he used to cry while fighting the cancer, and he was holding up well even at tears were all lies.

His tears were false tears. It is believed that crocodiles shed tears while consuming their prey. It is not because they mourn their dying prey, but crocodiles shed tears while chewing with their jaw because jaw nerves are the same as the nerves in their lacrimal glands. So, since ancient times we call false tears or hypocritical tears as 'crocodile tears.' Mainly we call hypocritical politicians or those shedding tears after causing a scandal in society.

성경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린 인물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14 장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꾀어서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려고 거짓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결국 삼손은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1 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I searched for any example of crocodile tears in the Bible. I could find it in one spot. In Judges 14 Samson's wife shed false tears to find out answers to the riddle. This is the only instance I could find it in the Bible. In the end Samson abandoned his wife. 1 Peter 2:1 encourages as this: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거짓과 위선을 버리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버려야 할 것은, 신앙적인 위선과 거짓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7:6 절에서 주님은, "이사야가 너희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 내 마음은 이미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데, 여전히 입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As we live as a Christian, He asks us to get rid of deceit and hypocrisy. However, what we should really get rid of are hypocrisy and deceit in faith. In Mark 7:6, the Lord condemned the Pharisees saying, "...Isaiah was right when he prophesied about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Let's reflect on our faith. We may still say 'very' faithful words even though our hearts are far from faith. We could call such words as hypocritical crocodile tears like the Pharisees.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도 모든 위선과 거짓을 다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위선과 거짓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거짓없는 믿음” (딤후 1:5)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He asks to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deceit in our life. Above all else, it is to get rid of hypocrisy and deceit in faith. I hope that we all try hard to stand up before God with 'sincere faith' with which the Apostle Paul praised Timothy (2 Timothy 1:5).